

목포시, 근대문화공간 문화자원 발굴위해 아카이브 구축

인물·사건 등 유·무형 근대문화유산 체계적 관리 토대 마련 “산재되어있는 목포 근대문화유산 일원적으로 정립 계기 되길”

목포시가 근대역사문화공간의 인적·물적 문화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아카이브 구축에 나섰다. '목포 근대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은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로는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는 과업 수행 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데이터로 관리 활용 할 수 있도록 정리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인물, 사건, 장소를 중심으로 한 기초조사, 공간내 건축자산에 대한 실측조사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 방안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3가지 주요 과업 수립을 목표로 원도심에 산재되어 있는 유무형의 근대문화유산 조사를 추진한다. 향후 정리된 자료는 온라인상으로도 공유하여 비대면 시대에 맞춰 관심 있는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할 예정이다. 시는 아카이브 구축 첫 단계로 목포에서 활동한 인물을 선정한다. 인물선정은 개항기부터 현재까지 사회, 문화, 교육,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던 인물 200여명을 대상으로 지역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되며 선정된 인물을 토대로 공간의 스토리텔링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올해 상반기까지 이곳에

서 활동했던 각종 단체, 장소(건물, 공간 등)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발굴된 다양한 유·무형의 문화자원은 상호 연계되는 대상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자원으로 관리해 나간다고 밝혔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아카이브 구축 용역을 통해 산재되어 있는 목포 근대문화유산을 일원적으로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목포시는 무수한 근대문화유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체계적인 조사와 관리시스템 구축



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조사를 통해 다양한 유·무형 문화자원을 발굴하여 향후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의 100년의 미래가치로 보존 활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목포=박정수 기자



무안 전통 '양림 벽구굿' 재현행사 성황 마을 안녕·번영·풍년 기원하는 곳...전통문화 자긍심 고취

무안군 양림 벽구굿 보존회(회장 이계선)는 최근 무안을 매곡리 양림마을에서 이어져 오고 있는 마을굿인 양림 벽구굿 행사를 재현하여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였다. 우도농악의 명맥을 잇고 있는 벽구굿은 마을의 안녕과 번영, 풍년을 기원하는 곳으로 마을사람들을 중심으로 전승되었다가 전라남도문화재단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지난해 굿의 진흥순서와 소리 등을 복원하고 금년에 재현행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날 행사는 어름굿을 시작으로 당산굿, 샘굿, 질굿(길굿), 문굿, 조왕굿, 장광굿, 갓굿, 판굿(다섯마당), 성조굿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양림 벽구굿은 농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으로 정월 당산제와 감매기, 두레, 풍장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상을 취하고 있으며 마을 부잣집의 큰 마당에서 판굿과 성주풀이가 이루어진다. 이때 부르는 성주풀이는 일반적인 성주풀이보다 굿의 성격이 많이 띠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의 마을굿과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이계선 회장은 “양림 벽구굿은 무안의 동제와 민속신앙 등 문화유산의 총 집결체”라며 “벽구굿을 통해 삶의 터전에서 바로 펼쳐지는 무안 굿의 원형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장식 (사)승달우리소리교범회 이사장은 “코로나19로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아무 탈없이 행사가 끝나서 다행이다”며 “앞으로도 무안군의 무형유산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과 보존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함평군, 올해 25개 분야 공모사업 선정...714억 확보

지역 미래 성장 동력 산업 발전·정주여건 개선 기대

함평군은 2020년 중앙부처, 전라남도, 민간기관 등 25개 공모사업에 총 714억 원의 국도비 등 예산을 확보했다. 이는 2018년 360억 원, 2019년 502억 원을 훌쩍 뛰어넘은 성과로, 지난 5월 군수 취임과 함께 공모사업을 총괄하

는 미래전략실을 신설해 공모사업 관리조례 제정, 인센티브 지원제도 마련 등 공모 대응역량을 강화시킨 결과다. 주요 공모사업은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월전향 어촌뉴딜 300사업,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사업 등으로 향후 지역 미래 성장 동력 산업 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내년에는 전남도·광주전남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지역에 꼭 필요한 공모사업에 적극 도전하고, 공모사업 사전검토 의무제 시행, 공모 사업계획 전문

가 컨설팅 지원 등 공모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공모사업 선정율을 높여갈 계획이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빛나는 성과를 일구어 낸 것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낸다”며, “2021년에도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끊임없는 노력으로 ‘새로운 도약 희망찬 함평’을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신안 암태 오도항 일원 천사대교 복합센터·공원 조성

신안군은 서남권의 랜드마크인 1004대교에 첨단장비를 갖춘 관리사무소와 함께 보고, 쉬고, 맛보고, 즐길 수 있는 복합센터가 조성된다 고 4일 밝혔다. 암태 오도항 일원에 들어서는 관리사무소와 복합센터에는 1004대교를 안전하게 관리할 최첨단 장비와 카페, 전시 및 홍보실, 전망대 등 다양한 편의시설 등이 마련된다. 복합센터와 천사공원 등에는 총 사업비 290억원이 투입되며 2022년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들 시설이 들어서면 1004대교의 안전강화는 물론 관광객들이 보고, 즐기고, 머물 수 있는 새로

운 명소로 급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안군과 익산지방방국토관리청은 최근 가칭 ‘천사 복합센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박우량 군수는 “1004대교는 이미 서남권의 랜드마크로 자리잡고 섬과 섬을 연결해주는 대교를 넘어 중부권의 ‘퍼플바다정원’, ‘1004섬 뮤지엄파크’, ‘무한의 다리’ 등이 언택트관광의 핫플레이스로 각광받는데 크게 기여했다”면서 “1004대교가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영광군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의 환경개선부담금 감면혜택과 납부자 편의 제공을 위해 오는 2월 1일까지 온라인 연납 신청·납부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매년 3월과 9월에 납부하는 부담금을 1월에 선납하면 연간 납부하는 부담금의 10%를, 3월에 선납하면 상반기 개선부담금의 10% 할인해 주는 제도로 납부 후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 등록을 하더라도 나머지 금액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납부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로 신청가능하며, 연납신청 및 납부기한은 1월 연납은 1월 16일부터 2월 1일, 3월 연납은 3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영광=서희권 기자

청정에너지의 오늘, 한수원이 펼치고 있습니다

더 편리하고 가치 있는 세상을 위해 청정에너지가 있는 곳 그 어디라도 한수원이 찾아가겠습니다

에너지 스카우터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주